MILAL & WORLD 11

장애인 전도 / 봉사 / 계몽

밀알&세계





표지사진

10월11일 남가주동신교회에서 열린 2026 밀알의밤을 마친 후 메인게스트 간미연&황바울 부부와 남가주밀알 수어찬양팀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2 | 칼럼
밀알선교단 사역 vs 지역 교회 사역

04 | 가을 피크닉
하나님의 위로

06 | 2026 사랑의캠프 에세이 공모전 은상 수상작
Reflections on Love, God, and Service

08 | 2026년 기획 연재: 밀알의 장애인신학 이야기 (11)
부활은 장애인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10 | 하늘보다 넓은 사랑
어머니의 아린 마음

12 | 2026 남가주 밀알의밤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

16 |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
Jesus Misses Us

밀알&세계

남가주 • 북가주 • 시애틀 • 벤쿠버 • 텍사스 통합판

통권 제309호 | 2026년 11월호
발행인: 이재서 | 편집인: 장영준 | 편집책임: 이준수

지역별 구독문의
남가주: 562-229-0001 |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

월간 <**밀알&세계**>는 장애인들과 함께하길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정성껏 만듭니다.

월간 <**밀알&세계**>에 관한 좋은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mweditor@milalsca.org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칼럼

밀알선교단 사역 vs 지역 교회 사역

밀알선교단은 지역 교회와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물심양면으로 밀알을 돕고, 지역 교회는 밀알의 사역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2015년 시카고에서의 9년 반 담임목회를 마치고 시카고밀알선교단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지역 교회의 담임목사를 그만두고 밀알선교단 사역을 하게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단 사역과 담임목사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드냐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담임목사가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 그것도 특수선교라고 불리는 장애인 선교 기관인 밀알선교단을 맡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제 인생의 가장 큰 결단일 것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학 때부터 밀알선교단 사역을 감당했고, 밀알선교단은 저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기에, 시카고밀알선교단이 어려울 때 큰 고민 없이 밀알선교단 사역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장애인 선교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대답은 지역 교회의 담임목회가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작은 교회의 목사님들은 정

말 저보다 더 힘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밀알선교단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사역하십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고 계시군요" 하시며 칭찬 일색입니다. 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그런 칭찬이 없어도, 하나님의 사역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니, 저보다 훨씬 어려운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제가 시카고에서 9년 반 동안 소형 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밀알선교단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들도 밀알선교단을 돕지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밀알선교단이 더 어렵다고 하시면서, 물심양면으로 돕고 후원해 주시는 작은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그랬습니다. 재정과 사람이 있는 교회들은 상대적으로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예산이 밀알선교단보다 적은 교회임에도, 밀알선교단에 매월 선교헌금, 행사에 필요한 선교헌금, 사랑의 교실 점심 등등 많은 사역에 후원해 주시는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밀알선교단의 사역은 한 사람, 한 교회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몇몇 대형교회의 후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밀알선교단을 위해 후원해 주시는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밀알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11월 감사의 달에 시카고에 있는 후원 교회, 특히 작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글 | **남성우 목사** (시카고밀알 단장)



하나님의 위로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알록달록 옷을 입기 시작하는 나뭇잎들? 새파란 도화지에 피어나는 뭉게구름?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가을 하면 생각나지만, 저는 가을을 떠올리면 우리 밀알에서 가졌던 가을 피크닉의 추억이 떠오릅니다.

이번 학기에도 우리 밴쿠버밀알은 가을 피크닉을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친구들과 밀알러들이 큰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품고 사랑의교실에 참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기대와 설렘으로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걱정과 근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번 학기를 밀알러로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친구들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근심이 제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 갈 때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을 피크닉을 통해 제 걱정을 사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가을 피크닉을 위해 밀알러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날씨는 너무도 화창했습니다. 비록 아침 일찍 일어나 피곤하고, 아침 이슬 때문에 바짓단과 신발이 젖어 찝찝하기도 했지만, 밀알러들은 묵묵히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장소에 여러 개의 돗자리를 깔고, 친구들과 함께할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을 맞이하기 전, 밀알러들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밀알러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밀알러들은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가을 피크닉을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제 안에서 더욱 힘이 솟았고, 그날 가을 피크닉에서 힘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장애인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차례차례 도착했습니다. 밀알러들과 친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친구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보니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밀알러들 또한 기대가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인사가 끝난 후에는 본격적인 가을 피크닉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창성 밀알러의 인도에 따라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큰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분명













사랑의교실에서도 매번 이렇게 찬양을 드렸지만, 왠지 모르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장소가 야외였기 때문이었을까요? 궁금함을 뒤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푸른 하늘 아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아래에서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 시간이 끝난 후, 모두 잔디밭에 펼쳐진 돗자리 위에 앉아 이상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목사님을 바라보며 집중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푸른 하늘과 커다란 나무들, 그리고 졸졸 흐르는 강물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주이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느끼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대그룹 리더들이 준비한 게임으로 가을 피크닉을 이어 나갔습니다. 리더들이 준비한 게임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Making the Scene'이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이 게임은 진행자가 제시하는 키워드에 맞춰 친구들과 밀알러들이 함께 장면을 만들어 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밀알러들 모두가 이 게임에 열심히 참여했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창의력과 행동력, 그리고 협동심을 볼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대그룹에서 준비해준 게임들은 너무나 재미있었고, 모두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대그룹 활동이 끝난 후에는 마지막으로 모든 친구들과 밀알러들이 함께 주변 공원의 트레일을 산책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계단을 오르고, 다리를 건너고, 자연을 감상하면서 계속해서 걷다 보니 어느새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느덧 가을 피크닉을 마칠 시간이 다가오자 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은 한 명 한 명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이 모두 돌아가고 밀알러들만 남았습니다. 남은 밀알러들은 각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며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가을 피크닉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밀알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밀알을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친구들을 위해 '내가'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곳에서는 내가 잘하지 못하고 실수하더라도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번 가을 피크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번 가을 피크닉을 통해 근심과 걱정을 소망과 기대로 바꾸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밴쿠버밀알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글 | **서예슬** (밴쿠버밀알 2023-01기 밀알러)

Reflections on Love, God, and Service from a Volunteer at Camp AGAPE

Our bus pulls into the green, pristine campus of Cal State Long Beach (CSLB), and my heart leaps as I see Michelle and Jenny, my two buddies. Both are waving to me gleefully. I can't wait to spend the long weekend with them. There will be no going home at the end of the day, as was the case with my previous volunteering activities at Irvine Onuri Church. This time, I will be by their side for the entire camp—from the moment we wake up to the moment we say goodnight, for every meal, for every excursion, and for every quiet, reflective moment in between. My experiences helping care for Michelle and Jenny at Camp AGAPE will show me what real joy, gratitude, and devotion to God look like.

As I step off the bus, Michelle walks right up to me and immediately takes my hand. For the past two years, I have been her buddy at Milal Mission's Irvine center, where I volunteer on Saturdays. I'm already familiar with the small details of her daily care rituals, which take into account her inability to speak and eat on her own due to Down Syndrome. But over these next two nights, I come to understand Michelle's routine in a way I've never had the chance to before: the order in which she likes to do her morning stretches, the songs that make her relaxed as I and the other volunteers give her a shower, and the exact pace at which she needs to be fed so she doesn't feel rushed or overwhelmed. Prior to camp, I've read in the Bible that God's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2 Corinthians 12:9), but this is the first time I see that verse in action through Michelle.

During mealtimes, I sit beside her, matching her rhythm, watching her face for the smallest signs of what she needs. And even when food gets stuck in her feeding tube and I have to interrupt the meal to unclog it, she smiles - it's a smile that spreads across her whole face, the kind that tells me she feels safe and known. That same joy is carried across her whole body during our daytime worship gatherings and dance parties alike, where I hold her hand, guiding her movements to each beat of the music. She dances in her own way, swaying and reaching her hands up out to the sky. Nothing holds her back - no self-consciousness, no performance. Despite her physical limitations in life, she is completely herself, completely free, completely present before God, even without uttering a single word. I have never seen anyone worship so honestly.

That purity of heart is something I witness in Jenny, too. She is in a wheelchair, which means her mobility is drastically restricted. Yet she doesn't let that stop her from enjoying what life has to offer—like a good soccer game. On our first day, I kick the ball to her, and she zealously picks it up with her hands, throwing it through the goalposts with an intensity matching the likes of Lionel Messi (she scores a ton of goals). The next day, we take a trip to the beach, and Jenny pulls

me by the hand toward the water. As we stand there letting the Pacific Ocean's waves wash over our feet, she keeps laughing, again and again, at the cold tickle of the sand—a simple sensation, a simple blessing. I laugh along with her, too. And in that laughter, I feel something I can only describe as God's own delight at our delight in His creation. I'm grateful to witness joy so unaffected and unguarded, with nothing to prove and nothing to fear.

Before Camp AGAPE, I thought of volunteering as something I did for those in need, an act of assistance I offered them. But hanging out with Michelle and Jenny, I realized we aren't only there for the buddies - they are there for us, to teach us that what is most important in life lies beyond what can be measured in metrics of volunteer hours and number of people helped. And that's exactly what Milal Mission hopes to achieve: a world where love is shared in abundance through moments of service, friendship, and worship. I see something of God moving through each of my buddies, in Michelle's smile that needs no speech and in Jenny's laughter at the humble pleasures of life. They both reinforce the reality that ability and disability are not opposite poles on a spectrum of human worth, but rather simply different ways of experiencing the same love and the same God.

캠프 아가페에서 보낸 2박 3일은 밀알 친구들인 미셸, 제니와 온전히 일상을 나누며 사랑과 기쁨, 그리고 섬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스스로 식사하거나 말하기 어려운 미셸의 모든 순간을 곁에서 도우며, 저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피딩 튜브(위관)가 막혀 식사를 잠시 멈춰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미셸은 도리어 환하고 편안한 미소로 저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찬양 시간이면 타인의 시선이나 자신의 신체적 한계에 조금도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뻗어 자유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아무런 말 없이도 온 몸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이제껏 목격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한 예배 그 자체였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하는 제니와의 시간은, 일상이 주는 단순하고도 경이로운 축복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제한된 움직임 속에서도 열정적으로 공을 던지며 축구를 즐기고, 바닷가에서 발끝을 간지럽히는 파도와 차가운 모래의 촉감에 끊임없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제니를 보며, 저 역시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꾸밈없고 맑은 웃음소리 속에서, 저는 피조물이 누리는 기쁨을 바라보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캠프에 참여하기 전까지 저는 봉사를 그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의 시간과 노력을 베푸는 행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셸과 제니는 오히려 저에게 다가와, 봉사 시간 같은 숫자로 잴 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장애와 비장애는 인간의 가치를 나누는 양극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동일한 사랑과 동일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서로 다른 아름다운 방식일 뿐입니다.

글 | **Kayla Lee** (남가주밀알, 얼바인 사랑의교실 봉사자)



부활은 장애인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장애인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종종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 걷고, 더 분명하게 말하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생활할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바람에는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을 언제나 장애가 사라지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언젠가 고쳐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위험도 있습니다.

오랜 전통으로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의 삶 앞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조금 더 깊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부활의 날에 장애는 모두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몸은 우리가 익숙하게 받아들여 온 건강하고 정상적인 몸의 기준과 같은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미래의 신체 상태에 관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시는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면서 씨앗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땅에 심은 씨앗과 그 씨앗에서 자라나는 식물은 모습이 다르지만, 둘 사이에는 생명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부활이 단순히 현재의 몸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생명을 완성하시는 사건임을 설명합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고전 15:42–44).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부활의 몸을 우리 사회가 만들어 온 신체적 정상성의 기준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부활의 영광을 약속하지만, 모든 장애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지 자세히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부활의 날에는 장애가 반드시 사라져야만 온전한 인간이 된다고 단정하는 일에도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생명은 우리의 신체적 능력이나 기능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문제를 바라보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십자가의 상처를 지니고 계셨습니다.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신 장면은 부활이 과거의 모든 흔적을 지워 버리는 사건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요 20:27). 십자가의 상처는 더 이상 죽음의 지배를 의미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사랑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상처를 장애와 동일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장면은 온전함이 반드시 모든 상처 흔적의 제거를 뜻하지는 않는다는 중요한 신학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부활은 한 사람의 역사를 지우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구속하시고 새롭게 완성하시는 사건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장애인의 현재를 바라보는 교회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단지 미래의 회복을 기다리는 불완전한 시간이 아니라면, 교회는 장애인의 오늘을 더욱 소중하게 받아들여

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우리의 인지와 반응에 성경적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지금 함께 드리는 예배와, 나누는 우정, 오랜 시간 쌓아 온 신뢰와 사랑은 언젠가 장애가 사라질 때까지 임시로 유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의 실제 삶이며, 교회가 함께 살아가야 할 신앙의 자리입니다. 한쪽 면에서는 개인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한다면, 다른 한쪽으로는 공동체로서의 우리 개인의 가치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장애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질병과 통증, 이동의 제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실제로 사람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교회는 이러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고통의 제거와 장애인의 존재 가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면서도 장애를 가진 사람의 현재 모습과 삶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아픔이 없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계 21:4). 이 말씀은 부활의 소망이 단순히 신체 기능의 개선에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창조에서는 인간을 억압하는 고통과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약속은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미래의 완성을 기다리는 동안 어떤 공동체로 살아가야 할까요? 부활의 소망은 현재의 삶을 소홀히 여기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증언하도록 이끄는 믿음입니다. 장애인이 불편함 없이 예배에 참여하도록 환경을 바꾸고, 서로 다른 의사소통 방식을 존중하며, 가족들이 홀로 돌봄의 무게를 감당하지 않도록 함께 책임지는 일은 그 소망을 현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미래를 가족이나 보호자의 기대만으로 결정하지 않고, 당사자의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교회 역시 그 사람의 오늘뿐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시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돌봄의 환경이 달라지고, 부모가 더 이상 곁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오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공동체의 관심 밖으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남은 생애를 함께 책임지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장애인이 언젠가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라는 기대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애인을 포함한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며, 누구도 그 사랑과 생명의 약속에서 소외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교회의 일상 속에 자리 잡을 때,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특별한 사역의 영역을 넘어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글 | **김정기 목사** (북가주밀알 단장)



어머니의 아린 마음

이 땅에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사람들은 지그시 눈을 감게 됩니다. 가난, 외로움, 버려짐의 사각지대에서 오직 자식만을 바라보며 살던 여인들이 우리 시대에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것을 자식들 앞에 갖다 놓으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입이 써서 못 먹는 단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그 말을 곧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표정은 살펴보지도 않고 열심히 먹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음을 이제야 압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에게 있습니다. 장애아들을 키우다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들을 무척이나 사랑하던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편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몇 고비를 넘기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밀알선교단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김 형제’는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어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외모가 준수하고 남자다운 기풍이 있어 겉모습을 보아서는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 ‘과연 저 친구가 장애인인가?’ 할 정도로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형제와 대화를 하면서 말을 더듬는 것과 손을 많이 떠는 모습을 보며 장애가 심각함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의 어머니는 4남매를 낳으셨습니다. 차남으로 태어난 형제를 위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노고는 말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 놓고 쉬는 시간마다 학교에 드나들며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아들을 심하게 놀리고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 아들을 지켜보기 위해 곁에 있는 다른 학교에 청소원으로 취직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은 미국에 이미 왔지만 비자 문제가 얽혀 형제는 한국에서 형의 신세를 지며 따로 살게 됩니다. 그 아들을 미국에 데려오기 위해 어머니는 애끓는 노력을 다했지만 정작 형제가 미국에 오게 되기까지는 8년의 세월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렇게 애를 써서인지 어머니는 신장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가까스로 신장이식 수술을 하였지만 부작용이 생겨 병원을 자주 드나들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병세는 악화되었고 몸이 자주 부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기에 이릅니다. 갑자기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김 형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위급하시다는데 어떻게 하죠?” 부랴부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고 연결해 놓은 산소호흡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계속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귀에 대고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재철 목사가 왔어요. 눈을 좀 떠 보세요” 말을 알아 들었는지 눈가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곁에 서있던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말을 알아듣나 봐요. 아까부터 이야기를 하면 눈물만 흘리네요” ‘임종예배’를 드렸습니다. 드리는 찬송에 어머니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고 ‘깜박’이던 눈의 움직임은 더욱 둔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70이라는 더 사실 수 있는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을 흔들어대던 남편의 울음소리와 마지막 어머니를 떠나 보내는 딸의 애절한 울음소리가 아직도 뇌리에 남아있습니다. 남자라서일까? 아니면 장애인이라서 표현을 자유롭게 못하는 것일까? 형제는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도 울지 못하고 서있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를 외치며 울어주었으며 좋겠건만 형제는 내어 미는 내 손을 꼭 쥐어 왔습니다. 다가가 조용히 안아주며 등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의 소원은 동일합니다. "내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사는 것"입니다. "부모는 돌아가시면 산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묻어서라도 먼저 가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저리도록 슬픈 그 이상입니다.

연약한 중에도 살림을 도맡아 하시고 장애를 가진 아들을 위해 온몸과 마음을 주시던 그분은 그렇게 한줌의 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깜빡'이던 어머니의 눈꺼풀은 장애아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안타까움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떠나도 모든 것을 책임 질 수 있는 복지시설을 갖추고 떠나는 부모들에게 "걱정마세요. 밀알이 있잖아요!"라고 말해 줄 수 없는 현실이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어머니,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글 | **이재철 목사** (필라델피아밀알 단장)







| 2026 남가주 밀알의밤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하는 '따뜻한 동행'을 아름답게 경험하다

남가주밀알선교단에서 주관한 '2026 밀알의밤'이 '따뜻한 동행'(전도서 4:9~12)'이란 주제로 10월9일(금)과 11일(주일) 이틀 동안 토랜스조은교회와 남가주동신교회에서 각각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밀알의밤 메인게스트는 1세대그룹 <베이비복스> 출신의 뮤지컬 배우 '간미연' 집사와 역시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는 남편 '황바울' 집사였습니다. 밀알의밤 역사상 처음으로 초청된 '부부' 메인게스트이고, 두 사람 모두 훌륭한 음악적 재능을












지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이기에 이번 밀알의밤에서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가 무척 컸었는데, 역시 간미연&황바울 집사 부부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뮤지컬 배우다운 열정적이면서도 부드러운 가창력으로 <광야를 지나며>, <Missing You>,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열심>, <은혜> 등 찬양과 베이비복스 히트곡들을 온 힘을 다해 열창하였고, 특히 '따뜻한 동행'이란 이번 밀알의밤 주제에 걸맞게 부부로서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며 하나님과 함께한 나날들을 은혜롭게 간증하였습니다.

특히 간미연&황바울 집사 부부는 찬양 중간중간마다 그 찬양에 얽힌 삶의 여러 에피소드들을 감동과 위트, 유머를 섞어가며 들려주었습니다. 원래 불교 집안 출신의 간미연은 15세의 어린 나이에 걸그룹으로 데뷔한 탓에 수많은 상처를 입어 항상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신실한 크리스천 황바울을 만나 결혼하면서부터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황바울은 아내에게 신앙을 강요하는 대신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남편의 삶을 통해 흘러나오는 평안의 근원이 바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은 간미연은, 서서히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온전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 없었던 깊은 트라우마의 사슬이 하나님



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자유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위로로도 채워지지 않던 텅 빈 마음은 이제 하늘이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로 다른 성향의 두 사람이 부부의 연으로 만나 힘들 때도 많고 다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는 틀림이 없다는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아름답고도 따뜻한 동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주에 계신 교포분들도 낯선 이국 땅에서 광야 같은 험난한 인생 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한걸음 한걸음 최선을 다하다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며 축복의 말로 간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러한 간미연&황바울 집사 부부의 감동적인 공연과 메시지에 두 교회를 찾아준 많은 관객들이 큰 은혜를 받았으며 우레와 같은 박수로 화답하였습니다.

바이올라대학교 신학생이자 남가주밀알 인턴으로 섬기는 ‘원호함’ 형제가 출연한 밀알장학금 영상은 진실한 사랑과 헌신을 통해 장애인이 앞서고 존중받는 세상을 꿈꾸는 밀알선교단의 비전과 이상을 표현하기에 충분했고, 올해도 바쁜 일상 속에서 수어찬양곡 <나는 주님께













속한 자>를 열심히 연습해 최상의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인 '남가주밀알 수어찬양팀' 역시 진정 장애인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었습니다.

2026 밀알의밤을 통해 모금된 후원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작으나마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여파와 높은 물가고, 점점 타락해가고 어지러워지는 세상으로 인해 더욱 위축되고 좌절감이 깊어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또 우리 주변 이웃들과의 '따뜻한 동행'을 가슴 깊이 일깨워준 2026 밀알의밤이 되었길 바랍니다. 특히 연약하고 소외된 장애인들도 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새롭게 깨달아, 이들과 항상 함께 걸으며 따스한 관심과 위로가 더욱 풍성해지길 기도드립니다.

글 | **이준수 목사** (남가주밀알선교단 홍보팀장)



Jesus Misses Us:
A Journey of Faith and Service at Milal Mission in NY

Every Saturday in Bayside, New York, volunteers and participants gather at Milal Mission in NY to share a meal, worship, offer praise, and enjoy fellowship. I began attending these gatherings in September 2024. Many volunteers from different churches and communities come to serve in the ministry.

My responsibilities are simple. I serve lunch, clean the dining room afterward, and then join the group in worship and prayer. Compared with the contributions of other volunteers, my role may seem modest, and I sometimes feel unworthy of sharing a testimony about it. Yet two experiences at Milal have had a profound impact on me and have shaped my understanding of service, faith, and the presence of Jesus.

My first experience occurred on the day I arrived at Milal. Unsure of what to do, I began speaking with people and trying to start conversations. Although I was nervous at first, I gradually became more comfortable. Then, one friend with Down syndrome approached me and said, “I missed you.” I smiled and thanked him, but I was also confused because it was my first day. In that moment, I wondered whether Jesus was speaking to me through this friend. Perhaps Jesus wanted me to know that He had been waiting for me there and that He had missed me. My response became a quiet prayer: “Thank You, Jesus, for welcoming me into this place.”

The second experience was the gradual disappearance of my fear. I believe that Jesus is almighty, merciful, and loving—the Creator of the world who watches over us from heaven. Even so, I once carried difficult questions. I wondered

---

[한글 번역 요약]

2024년 9월, 저는 뉴욕밀알 사랑의교실에서 배식과 청소라는 작고 소박한 섬김을 시작했습니다. 낯설고 긴장된 마음으로 서 있던 첫날, 다운증후군을 가진 한 친구가 저에게 다가와 "보고 싶었어요(I missed you)"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온 저에게 건넨 그 뜻밖의 한마디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이곳에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셨던 예수님의 따뜻한 환대이자 다정한 음성이었습니다.

봉사를 이어가며 제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두려움과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친구들이 장애라는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깊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작은 수고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일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장애를 가진 이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고 품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저는 곧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았습니다. 저에게 비록 말씀



whether my friends at Milal would be able to know Jesus and understand the depth of His love amid the circumstances of their disabilities. I questioned what I could do for them and whether my efforts had any meaning.

Over time, however, I was reminded not to be afraid. Throughout His ministry, Jesus showed compassion for and welcomed people with disabilities, healing them and giving them sight and voice. I have therefore chosen to let God use me as His vessel. I may not be qualified to preach, but I can pray. I may not be a gifted singer, but I can praise with joy and enthusiasm. I may not possess a special talent, and at times I still feel frustrated by how little I can do. Nevertheless, I can take on the ordinary work that others may not want to do, trusting that, by grace, my service may help others encounter Jesus and recognize how deeply He loves each one of them. I want them to experience the same love that Jesus showed me on the cross.

Although she cannot attend every week, my daughter, Gaby, has started coming to Milal. She is still unsure of what to do and is exploring how she can contribute to the ministry. As a parent, I am proud that she serves in the ministry together with her dad. Could this be how God looks down on me from heaven, feeling the same way? Milal NY needs prayer, encouragement, and active participation. My own experience has taught me that service begins by answering an invitation that is already waiting for us. Jesus misses us and calls us to respond, not next week or tomorrow, but today.

을 전할 자격이나 화려한 찬양의 은사는 없을지라도, 남들이 꺼리는 궂은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평범하고 작은 섬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만나게 될 줄 굳게 믿습니다.

최근에는 딸 개비(Gaby)가 저와 함께 밀알의 봉사 자리에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아빠와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봉사하는 우리를 하늘에서 바라보실 하나님 아버지의 벅찬 기쁨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봉사란 그저 남을 돕기 위한 나의 헌신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 예수님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워하며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에, 내일이나 다음 주가 아닌 바로 '오늘' 응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글 | **Jake Sohn** (뉴욕밀알 자원봉사자)

지단별 소식

남가주

2027 밀알 장학생 모집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이 있으면 밀알 장학금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는 남가주 밀알 홈페이지(www.milalsca.org)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LA 화요예배 (10월)

6일: 조영건 목사님께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전성도 전도사님이, 특송은 김혜랑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박영희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10월 생일 잔치도 있었습니다.

13일: 송영석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이영주 사모님이, 특송은 수어 중급반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섬겨주셨습니다.

20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김미향 전도사님이, 특송은 문인표 집사님이 섬겨주셨습니다.

27일: 짜장면 데이로 모여 맛있는 중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OC 목요예배 (10월)

1일: 이재형 목사님께서 '천사처럼 섬기세'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양희원 집사님이, 특송은 유인식 형제님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는 밀사모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또 10월 생일 맞은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5일: 이종희 단장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는 지련의 자매님이, 특송은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와 남가주 밀알 수어찬양팀이 섬겨주셨습니다. 저녁 친교 역시 OC한인교회 임마누엘선교회에서 준비해주셨습니다.

22일: 갈보리선교교회 심상은 담임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대표기도, 특송, 저녁친교 모두 갈보리선교교회에서 섬겨주셨습니다.

29일: 짜장면 데이로 모여 맛있는 중식을 먹으며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교실 (10월)

3일: LA 브랜치에서는 Griffith Sensory Park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부모님들과 함께 예배와 말씀 공부, 식사와 다양한 활동을 즐기며 웃음 가득한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10일: OC 브랜치에서는 공원에서 삼겹살 파티를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7일: Adult 브랜치에서는 설레는 기차여행을 떠났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함께 웃고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24일: Torrance 브랜치에서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위한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사랑을 나누며 행복한 웃음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31일: 통합반에서는 할로윈을 맞아 호박 가면 만들기 활동을 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며 창의력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도제목

- 밀알가족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항상 주님의 보호와 인도가운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 LA화요모임, OC목요모임이 계속 은혜롭게 진행되어 밀알가족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 토요 사랑의교실 7개 브랜치가 은혜가운데 안전하게 진행되고, 교사,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참가자들도 적극적으로 예배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 각종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밀알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도록.
- 스탭들과 모든 밀알가족들, 후원해주시는 교회들과 후원자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 감사가운데 2026년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 2026년도 밀알 장학생들이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일군들로 준비되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 밀알의밤 정산이 잘 마무리되어 풍성한 장학재정이 마련되도록.

북가주

화요예배

10월에도 화요예배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드려졌습니다.

6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임마누엘장로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섬겨 주셨고, 새누리교회 유스앙상블 힐링하모니가 찬양인도와 특별연주로 예배를 은혜롭게 열어 주셨습니다.

13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시온영락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0일: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그곳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27일: 세계선교침례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며, 실리콘밸리선교합창단이 아름다운 특송으로 섬겨 주셨습니다. 매주 장소로 함께해 주시는 세계선교침례교회와 산호세한인장로교회, 그리고 찬양과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월 17일 화요예배는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추수감사절예배로 모입니다.

산호세 사랑의교실

10월에도 산호세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3일에는 산호세영락교회, 10일에는 아가페교회, 17일에는 새누리교회, 24일에는 선한샘교회, 31일에는 베델연합감리교회가 식사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발달장애 형제자매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예배하고 배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산타클라라 사랑의교실 친구들이 Art & Craft 시간에 한 해 동안 정성껏 만든 작품들을 밀알의밤 현장에서 판매했고, 장애 친구들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만들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Art & Craft 선생님들과 작품을 구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북가주 밀알의밤 후기

10월 25일(주일) 오후 5시, 마운틴뷰 새누리교회 본당에서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북가주 밀알의밤이 열렸습니다. 게스트로 함께해 주신 간미연·황바울 부부의 찬양과 간증이 장애인 가정에게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누리교회의 손경일 목사님과 스텝들의 헌신적인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가족들이 헌금과 후원을 약속해 주셔서 앞으로의 사역에 큰 기대와 힘이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제목

- 연약한 지체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광연 장로님(간이식 준비), 장연화 자매님(재가장애인), 도한철 선교사님(루게릭), 로사 자매 아버님(건강회복), 이은희 작가님(신장투석), 써니 집사님(건강회복), 예진 어머니(회복)
- 한국을 방문하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1월 5일부터 8일까지 멕시코 후아레즈밀알이 준비하는 아가페 페스티발에서 장애사역세미나를 지원하는 일에 은혜를 주시고,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밀알의밤에 후원을 약속해 주신 가족들의 마음이 앞으로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 사랑의교실에 새로운 봉사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27년 밀알 화요예배와 사랑의교실에 후원하는 교회들과 성도들이 새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감사한 일

북가주밀알선교단의 화요예배를 설교해 주셨고, 초대 이사로 밀알선교단의 장애사역을 위해 애써주셨던 산호세동산교회의 임택규 담임목사님께서 10월11일에 담임목사 은퇴식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밀알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날들과 따뜻한 미소와 성도들을 독려하셔서 귀한 섬김에 함께 참여해 주셨던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북가주밀알선교단은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아직도 선한 영향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애틀

시애틀 사랑의교실

샬롬! 사랑의교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랑의교실은 기존 사랑의교실과 함께 <밀알&세계> 발송작업을 함께 했습니다. 이날 시애틀 형제교회 다운타운 캠퍼스의 청년들이 와서 봉사해 주셨고, 형제교회 긍휼팀에서 함박스테이크로 점심식사를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남은 날 동안에도 밀알의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교실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오후2:30 에드몬즈의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나 장애인 친구를 소개할 분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 목사 425-444-1669, 남성식 디렉터 425-361-9368)

시애틀 밀알아카데미(S.M.A)

매주 화요일, 성인 장애인을 위한 정기모임이 있습니다. 음악수업, 크래프트, 탈춤, 북클럽, 산책, 마트 장보기, 영화보기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쿠킹수업을 했습니다. 이날 모든 친구들이 자신의 테이블에서 프랜치 토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든 것으로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Bob's Corn & Pumpkin Farm에 가서 사진도 찍고 호박도 만져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즐겁과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2학기에도 여전히 더 많은 봉사자(남자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봉사자들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봉사자로 자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rl 부탁드립니다.

타코마 밀알아카데미(T.M.A)

매주 목요일 타코마 성인 장애인 정기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예배, 음악수업, 체육, 크래프트, 산책, 견학 등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장영준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셨고, 박현실 사모님이 음악수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번 음악시간에는 새로운 악기 스틸텅드럼을 배우며 연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점심 후 오후에는 산책과 태권도 수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학기 모든 일들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학기에는 더 많은 활동이 풍성하게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TMA의 귀한 사역이 더 풍성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밀알에 귀한 사무실과 사랑의교실 장소를 제공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타코마 사랑의교실에 장소,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S.M.A 장소와 15인승 Van을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시애틀 형제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SMA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Sunny 집사님. 낮은울타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 매월 1회 사랑의교실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시애틀연합장로교회, 형제교회, 시애틀온누리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알립니다

- 장영준 목사는 밀알선교단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 준비에 참여했습니다.
- 장영준 목사는 10월 4일 동양선교교회에서 설교하며 밀알을 홍보했습니다.
- 시애틀형제교회 Star Ministry(장애인 주일학교)예배가 주일 오후12시에 있습니다.
-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지역에 장애인(자폐 및 지적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예배를 소개해 주세요.
- SMA(시애틀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3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탈춤, 독서클럽, 산책, 시장보기,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 시애틀 형제교회 빌딩2, 109호)
- TMA(타코마 성인장애인 모임), 매주 목요일 오전 11:00~오후3:00 성인장애인을 위한 예배와 활동(음악, 미술, 요가, 산책, 체육, 외부활동)이 있습니다. 주위에 성인 장애인들을 위해 봉사하실 봉사자가 있다면 밀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코마중앙장로교회)

밀알에서 필요한 것

- 시애틀 사랑의교실 친구들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지원할 개인과 교회를 찾습니다. (견학, 스포츠게임, Dancing, 태권도 지도, 동물원관람 등 사회적응프로그램 재정지원)

매주 토요일 사랑의교실에 필요한 점심과 간식을 제공해 주시고 봉사해 주실 교회나 단체, 개인이 필요합니다. (종이접시, 컵, 플라스틱 수저, 포크, 넵킨, 물도 필요합니다) 매주S.M.A(화) 와T.M.A(목) 성인장애인 예배와 활동 모임에 점심식사와 간식을 제공할 교회와 개인을 찾습니다. (20명)

기도제목

- 2026년 하반기에도 밀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되도록
- 미주밀알 총단장직을 맡은 장영준 목사의 건강과 지혜를 위하여
- 한국으로 이주한 정남수 가정과 이곳에 이주한 이은주 가정이 잘 정착하도록
- 장애인 사역에 헌신된 사역자와 봉사자를 보내 주세요.
- 사랑의교실과 SMA & TMA친구들과 가정, 봉사자를 위하여
- SMA에 새로 오신 선생님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새로 온 사랑의교실 장애인 친구들과 봉사자들을 위하여
- 지역사회 장애인들이 맘껏 이용할 수 있는 '밀알아트센터'가 세워지도록
- 매주 화, 목요일 진행되는 성인장애인의 모임인 SMA, TMA을 위하여
- 사랑의교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도록
- 시애틀 온누리교회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타코마제일침례교회의 사랑부(장애인)사역을 위하여
- 시애틀 형제교회 장애인 주일학교 Star Ministry(장애인)를 위하여

밴쿠버

밀알 토요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

밀알에서 행복한 친구들과 밀알봉사와 함께 성장해 가는 밀알러들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밴쿠버밀알 사랑의교실 Happy Together는 행복한 예배와 즐거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9월 19일에는 즐거운 가을소풍을 나갔습니다. 9월 26일에는 단장 이상현 목사님이 사도행전 26:17을 본문으로 'From Darkness to Light' 말씀을 전해주셨고, 10월 3일에는 사도행전 10:46을 본문으로 'They are speaking & Praising God'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9월 19일 가을소풍에는 새문안교회(담임목사 김민우), 9월 26일에는 조이플교회 담임이신 김영남 목사님 가정, 그리;고 10월 3일에는 한사랑교회(담임목사 신용규)에서 정성 가득한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번 큰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을소풍

올해 가을소풍은 언제나 아름다운 타인헤드 파크로 갔습니다. 야외활동을 하기에는 정말 적당한 날씨를 주셨고, 밴쿠버의 아름다운 자연이 우리 밀알친구들을 반겨주었습

니다. 늘 감사와 기쁨으로 올리는 찬양을 드린 후, 단장 이상현 목사님이 시편 96:1-2 말씀을 본문으로 'Sing to the Lord!'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넉넉하고 맛있는 점심과 후식 또한 우리를 즐겁게 했고, 대그룹팀에서 준비한 게임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파크길을 따라 걸으며 몸도 튼튼히 하면서 함께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아간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

격월로 10여 년이 넘게 꾸준히 밀알 1일 단기선교로 사랑의교실을 방문하는 밴쿠버 성산교회(담임목사 정윤달) 청년부가 청년부를 지도하는 김성훈 목사님과 6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랜 친구들을 만나듯 우리 친구들은 너무 반갑게 환영했습니다. 성산청년 밀알러들이 함께 해서 사랑의 교실이 더욱 풍성해졌고, 성산청년부가 준비한 선물로 손도, 입도 즐거워진 하루였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밀알에 큰 선물을 주신 성산청년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 1일 단기선교는 아주 특별한 선교이며, 시간을 많이 내지 않고도, 따로 휴가를 내거나, 멀리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또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도 단기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밀알이 진행하는 사랑의교실에 몇 시간 함께 하는 것으로 훌륭한 단기선교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문의, 604-339-4417 단장 이상현 목사).

참조: www.vancouvermilal.com > Get Involved> Become a Milaler> Day Mission Milaler

밀알러(발룬티어) 리크루트

'Love in Action, Faith in Motion!' 밀알러로 함께할 발룬티어를 찾습니다. 축복된 경험을 함께 하고 싶은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안내해 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밀알은 좋은 지원자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훌륭한 봉사자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신청대상: 9-12학년 학생 및 청년, 대학생
- 정보 참고: www.vancouvermilal.com
- 신청방법: https://bit.ly/MilalVolunteer

밴쿠버밀알 설립25주년 감사, 밀알의밤

11월 14일, 밴쿠버밀알 25주년을 감사하면서 밀알의밤을 엽니다. <Heavenly Participants>를 주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장소는 밴쿠버순복음교회(3095 Norland Ave, Burnaby), 도어오픈 시간은 6:45pm입니다.

밀알선교사역 나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밀알선교사역 및 장애인'선교'에 관하여 알기 원하거나, 함께 할 관심이 있는 교회, 기관 및 단체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604-339-4417).

e-transfer 후원방법 안내

이트랜스퍼를 통하여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밀알을 후원하시면 세금감면을 위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하실 때, 영문이름, 포스탈코드를 포함한 주소, 이메일을 남겨 주세요. (연락처: giving@vancouvermilal.com)

기도제목

- 2026년에도 밴쿠버밀알의 모든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밴쿠버의 장애인들과 가정들이 밀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 안에 살게 하소서.
- 밀알가족들, 그리고 지역교회와 함께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의 사역을 잘 감당하여, 장애인의 회복으로 표상되는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쓰임 받게 하시고, 복음사역, 성령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시어 '사람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하는 사역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밀알로 세워주소서.
- 장애인선교를 위하여 함께 하는 이들과 기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장애인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며, 그 증인으로 살게 하는 밀알선교를 함께 이루어가는 좋은 봉사자, 기도 및 재정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소서.
- 11월 14일 밀알의밤 준비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삼으소서.

단장 이상현 목사님과 유혜정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 부탁합니다.

텍사스

토요 사랑의교실

10시부터 모여 찬양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Bible study와 Art & Craft 활동을 배운 설교말씀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Gym으로 옮겨 가서 발달에 필요한 여러가지 신체활동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음악치료 활동을 하면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 교회, 단체 및 개인들께서 재정과 음식으로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scape Bakery에서는 봉사자들을 위한 베이커리로 섬겨 주셨고, 12일에는 정선혜 집사님, 19일 달라스 참빛교회, 26일은 뉴송교회에서 점심을 섬겨주셨습니다. 토요 사랑의교실에 점심 봉사를 원하시는 개인과 단체는 다음의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또한 토요 사랑의교실에 참여하기 원하는 5세 이상 장애인들은 연락주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텍사스밀알 오케스트라 모임

Many hearts, One harmony.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연주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장애인 인식 개선과 지역 선교를 위한 밀알 오케스트라가 2026 밀알의밤 공연과 내년 2027년 정기연주회를 위해 매주 토요일 1:30-3:00, 한우리미션센터에서 리허설을 합니다. 말씀을 나누고 음악적으로 성장하는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오케스트라에 관심있는 단원을 모집합니다. 밀알사무실로 연락주세요

텍사스밀알선교단의 밀알의밤

10월 23일 금요일에 뉴송교회(4220 Fairway Dr, Carrollton, TX 75010)에서 밀알의밤이 개최되었습니다. 긴미연&황바울 부부가 메인 게스트로, 밀알오케스트라, 첼로앙상블, 최다윗(악기), 김다나(성악), 실내악 등이 연주하였으며, 많은 이들이 함께 응원해주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밀알의밤이었습니다.

텍사스밀알 콰이어 단원 모집

하나님을 노래를 통해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장애인,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모두를 초대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선교단으로 문의하세요. (267-467-5971, txmilal@gmail.com)

기도제목

- 텍사스밀알선교단을 통해서 장애인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함께 한 봉사자들이 밀알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밀알에서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 텍사스 내 다른 지역에 사랑의교실 사역을 확대하길 원합니다. 합당한 만남을 주장하소서
- 지금의 봉사자들을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게 하소서
-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언어, 미술, 운동, 행동치료 등의 전문가 그룹을 조성하게 하시어 밀알 토브 사역이 진행되게 하소서
- 지역의 여러 교회가 밀알 사역을 선교지로 알게 하시어, 선교에 동역하는 마음을 부어 주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창을 보여줄 수 있도록 지도하소서
- 합창단원이 모여져 하나님을 목소리로 찬양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며, 새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모여 다음 연주회까지 하나님 앞에 더 준비되게 하소서
- 사랑의교실과 아카데미에 있는 장애인들이 성장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다양한 면들을 잘 제어하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 2027년에 시작하는 밀알 평생아카데미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준비하게 하시며,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길을 여시고, 행정적 시스템을 성경적 틀 안에서 갖추게 하시며, 아카데미에 함께 할 장애인들을 보내주소서
- 리더십의 영육간 건강을 허락하소서. 그들 삶의 깊은 곳까지 주님께 의뢰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재정보고 2026년 9월

| 남가주

■ **INCOME: $31,905.00**

Individuals: $7,890.00 $30 Hyoung Seo / $50 Hye Ran Lee, Ken Lee / $60 Youn G Ro / $100 Anthony D. & Chun C. Gamble, Eunsook Park, Ho Myoung & Won Sook Lee, Kyong Ok Lim, Mi Sup Lee, Sung Jin Kim / $200 Hyeong K Jin & Hyun S Choi, Jaemin Youk, JinKyung Choi, June Sin, Kyung Won & Sangmi Kang / $300 David Heung & Jeong Mi Kim, Ki Sook & Yoon Ho Kang / $500 Steven Chul Kim / $1,000 Christopher S Lee, Inju Uyehara, Sunkyung Han / $2,000 Yong Gyu & Heakyung Jeon

Churches & Businesses: $9,000.00 $50 Alabama Full Gospel Church / $100 Rohthem Presby. Church / $150 The Lighthouse Mission Church / $200 Bankcard Services, Bethel Korean Church, Choong Hyun Ch(Good Samaritan Fellowship), Korean Young Saeng Presby Church, Light of Love Mission Church, Wisdom Mission Church / $250 El Paso Central Baptist Church / $300 Full Gospel L.A Church, H.D. Grace Church, Irury LLC, Sarang Community Church,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The Lord's Community Church / $400 Beautiful Hill Presbyterian Church, Hyungje Presbyterian Church of SC / $500 General Metal Recycling Co. / $600 Berendo Street Baptist Church,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 $900 Thanksgiving Church / $1,000 New Praise Church-Hwapyeong Sarangbang / $1,050 Irvine New Life Korean Church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15,015.00 $50 Donor Advised Fund / $1,200 Designated for Rent / $5,000 WMU Collaboration Project / $900 Camp Fees / $5,000 Hanmi Bank Grant / $2,182 Camp Fundraising / $183 Insurance Refund / $500 Class AGAPE

■ **EXPENSE: $23,194.44**

Class AGAPE: $3,367.85 $230.71 Class Outings / $1,109.76 Class Meals & Snacks / $469.27 Class Materials & Snacks / $90 Camp Parking Fee / $1,468.11 Volunteer Workshop

Camp AGAPE: $22.57 Camp Photos

Adventure AGAPE: $3,476.21 $1,000 Advertisement / $1,116.21 T-Shirts / $1,360 Parking Fees

Media Mission: $962.09 $921.62 Shipping & Handling / $40.47 PO Box & Return mail

Meeting & Events: $357.96 $293.02 Juarez AGAPE prep meeting / $64.94 Mexico Missionary

Charitable Supports: $1,500.00 $500 Periodic Supports / $300 Palm Misson Church / $500 Funeral Flowers for Han & Jun Family / $200 Wedding Gift for Lee Family

Ministry Expense: $936.84 $150.62 Farewell Lunch for Lee / $87.96 Shimbang / $500 Tuesday Worship / $84 Birthday cake / $114.26 Supplies for Tue. & Thur Worship

Fundraising Expense: $109.10 Packaging Supplies

Payroll Expense: $9,191.37 $5,803.66 Salaries & Wages / $452.96 Payroll Tax / $840 Employee Benefit / $2,094.75 Housing Support

Admin & Management: $2,496.40 $61.03 Woongjin / $332.25 FBM / $138.87 Telephone & Internet / $628.42 Electricity / $1,020.60 Alliance Fee for America Milal / $102.23 Office Meals / $213 SBA EIDL Interest

Auto Expense: $774.05 $474.05 Gas / $300 Maintenance

Previous Carry over Balance: $11,517.2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20,227.83

■ **Milal Scholarship Finance Report**
INCOME: $70,950.00 <Churches & Businesses $600: $300 Irvine Onnuri Church / $300 Milal Mission in Philadelphia> <Specials & designated $70,350: $1,000 Designated to Lee Family / $5,000 KDF Grant / $44,050 Milal Night Night Brochure Ads / $18,500 Milal Night Contribution / $1,800 Milal Night Tickets Sales>
EXPENSE: $24,439.79 <Scholarship $11,466.25: $1,500 Collegians / $1,000 Designated Scholarship / $8,066.25 Reserved Ministries Support / $900 Volunteers Aids> <Milal Night $12,973.54: $1,000 Advertisement / $161.59
Preparation / $10,412.54 Guests / $1,399.41 Praise Team>
Previous Carry over Balance: $22,004.05 |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8,514.26

| 북가주

■ **INCOME: $15,446.74**

Individuals: $7,170.00 $50 김성준, 김신자, 김영, 이우성 / $100 Klepeis Family, Jonathan &Joung Ok Han, 김만종&정애, 김애경, 나정화, 이석권&정찬미, 한의상미성 / $120 고순옥 / $200 최영훈&재현 / $300 공은정&명진, 김정기&남경아, 레이첼가정, 애디김가정, 오영수, 정찬희 / $400 이학천$지선 / $500 신두철&김희주, 정소라가정, 차현상&은미 / $2250 오명섭

Churches & Businesses: $5,246.74 $56.74 AOGF / $100 브루스리미용실,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 세화교회, 트레이시주은혜교회 / $200 Luxe Apparel & Gift, the Light of Christ Church, 주손길교회 / $300 몬트레이제일장로교회, 임마누엘장로교회(밀알목장), 심포니교회 / $400 임마누엘장로교회 / $500 우드맨보험 / $640 실리콘밸리장로교회 / $750 세계선교침례교회 / $1000 산호세교회협의회

Designated Donation: $3,030.00 <사랑의교실 $900: $100 김정기&남경아, 마이클가정 / $200 안수빈가정, 애디김가정 / $300 엠마오선교원> <화요예배 $430: $100 김정기&남경아, 이강진&권유진 / $230 전송화> <멕시코밀알 $1700: 시애틀밀알>

■ **EXPENSE: $12,582.66**

Mission Expenses: $8,552.30 사례비(5인) $7,056.35 / 선교활동비 $327.13 / 미주밀알지원 $301.01 / 은급비 $300 / 화요예배 $271.36 / 사랑의교실 $47.13 / 멕시코지정 $249.32 /

Admin. & Management: $2,138.50 유틀리티 $171.58 / IRS Tax $492.87 / 사무실임대료 $1,400 / 사무실비품 $74.05

Auto Expense: $513.12 유류비 $160.21 / 수리비 $169.91 / 등록비 $183

Media Mission: $1,378.74 밀알&세계발송비 $487.97 밀알&세계인쇄비 $879.12 / 일반우편발송 $11.65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9,023.7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1,887.81

| 시애틀

■ **INCOME: $10,400.00**

Individuals: $3,500.00 30 남숙희, 정은옥X2 / $50 이영자, 조성배 / $100 경자혼, 오수미, 노현숙, 김해정, 손희섭, 송인숙 / $150 김복조 / $200 조천석, 윤태준&이정주 / $300 김초미 / $400 최지은 / $460 장영준&장아련 / $1,000 이명운

Churches: $2,350.00 $100 밴쿠버 사랑장로교회, 벨링햄화평교회, 타코마 삼일교회, 시애틀 물댄동산교회, 목양감리교회, 순복음 큰빛교회 / $150 페더럴웨이 벧엘침례교회 / $200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 타코마 중앙선교교회 / $400 시애틀 평강장로교회 / $800 시애틀 행복한교회

Businesses: $1,200.00 $100 임학수 CPA / $300 Fair Ridge Law Firm, 헬스빌리지 / $500 주내과

Designated Donation: $3,350.00 SMA&TMA ($2,750 회비 / $300 이현주, 최원)

■ **EXPENSE: $13,791.21**

Mission Expense $3,828.44 / Admin & Management $1,635.69 / Media Mission $1,347.94 / Class AGAPE $406.48 / 상회비 $532.20 / SMA&TMA $2,246.28 / Tax $481.60 / Special event $352.31 / Fundraising $300 / Agape Camp $106.18 / Insurances $338.11 / Pastoral Visit $1,915.98 / Retirement Plan $3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74,424.27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71.033.06

| 밴쿠버

■ **INCOME $3,905.00**

Individuals: $1,280.00 $10 김형용, 계영실 / $20 이경순 / $30 원소현, 테레사최, 정미영 / $50 이혜영, 이재림 / $100 이상현&유혜정 / $200 하준석 / $750 구지성

Churches & Businesses: $300.00 $100 헤브론교회(#7760) / $200 Oronia, WJD Foundation

Specials & Designated Donation: $2,325.00 <사랑의교실 렌트비 $1,520: $50 오정석 / $100 곽혜경 김계은, 문은선, 허경찬, 서동구(9월), 김도건 / $120 장믿음 / $150 강향숙, 김타숙(#556) / $200 윤영로 / $250 이상화> <9월 예배헌금 $305: $10 윤관진, 허예나, 무명 / $15 이해 / $20 이상현 / $40 에드윈 / $50 이예담, 오예찬 / $100 박수영> <designated 500: 코람데오(#5098)>

■ **EXPENSE: $6,753.46**

Payrolls: $4,104.79 사례비(2인) $3,654.79 / 은급비(3/4) $450

Mission Expense: $54.34 활동비

Events: $48.59 밀알의밤 게스트 미팅

Class AGAPE: $255.82 <Happy Together Class $188.64: 통신비 $61.60 / 소모품 $29.10 / 건전지, 물 $32.38> <오리엔테이션 $67.18: 음료, 물 $62.93 / 커피필터 $4.25>

Admin & Management: $328.28 통신비 $67.20 / 소모품 $17.08 / 바운스리턴 $200 / 은행피(바운스피 포함) $16 / 챗지피티 구독료(9월) $28

Taxes: payroll(9월) $527.51

Auto Expense: $934.13 운행비 $300.88 / 밴보험(10회차) $203.71 / 밴 패이먼트 $429.54

Designated Expense: $500.00 코람데오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0,151.43-311.20=$9,840.23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6,991.77
8월 사무관리비 $311.20이 지출금 총액에 합산되지 않아서 정정함.

| 텍사스

■ **INCOME: $10,841.85**

INDIVIDUALS: $675.00 $20 진현주, Youn Yang/ $25 방진원 / $50 김태남&이선화, 김희경 / $80 정호영 / $180 채경수&임현정 / $250 박진영

CHURCHES & BUSINESSES: $1,806.85 $6.85 interest / $50 프렌즈교회 / $100 나눔교회 / $150 영락장로교회 / $200 JDX / $300 주님의교회 / $1,000 조이플교회

DESIGNATED DONATION: $8,360.00 <사랑의교실: $200 김병윤, 무명2 / $630 FENY / $2,060 The One Hero Project> <아카데미&오케스트라: $50 김결 / $100 송미령, 구본진 / $280 오케스트라 단원회비 / $1,040 아카데미등록비> <밀알의밤: $100 김강 / $300 황명자 / $500 황찬수 / $1,000 베다니장로교회 / $1,200 손유진 / $200 티켓판매> <직업재활: $200 세미한 Beanyard coffee>

■ **EXPENSE: $9,105.31**

MISSION EXPENSE: $4,322.57 Payroll $1,385.25 / housing support $1,700 / 밀알&세계 인쇄비 $405 / 지단상회비 $145.28 / 은급비 $288.02 / 간사사례 $300 / 단장활동비 $99.02

CLASS AGAPE & 밀알아카데미 & 오케스트라: $1,878.86 사랑의교실 점심 물품 $296.92 / 오케스트라 및 아카데미 강사료(5인) $720 / 보면대 $79.98 / 밀알의밤 인쇄물 $490 / 밀알의밤 연주자 항공료 $291.96

ADMIN & MANEGEMENT: $2,903.88 장소사용료 $200 / 카드 등 재정관련수수료 $118.03 / 통신비 $100 / IRS tax $229.50 / NTTA toll $215.71 / Gas $340.53 / Insurance $100 / Utility $397.22/ 사무용품 $39.99 / 우표구입 $164 / 체크 $32.03 / 차량관리 $766.87 / 신문광고 $200

PREVIOUS MONTH CARRY OVER BALANCE: $10,525.28
NEXT MONTH CARRY OVER BALANCE: $12,261.82

The World Milal Association 세계밀알연합 | worldmilal.org

서울 동작구 솔밭로 97-6, 3층 / Tel: 02-533-9251 / Fax: 02-533-9258 / wmilal@worldmilal.org

American Milal Mission Inc. 미주밀알선교단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wheatmissioninus@gmail.com

Milal Mission in Southern California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종희 단장) | milalsca.org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562-229-0001 / admin@milalsca.org

정기모임	OC	매주 목 오후 7:00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LA	매주 화 오후 7:00	남가주새누리교회	975 S. Berendo St, Los Angeles, CA 90006
	월례기도모임	매월 마지막 화 오후 7 :30	Zoom	
사랑의교실	OC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연합장로교회	1565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LA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주님의영광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동부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선한청지기교회	2701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얼바인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토랜스	매주 토 오전 9:30 ~ 오후 1:30	토랜스제일장로교회	1880 Crenshaw Bl., Torrance, CA 90501
	성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2:00	남가주밀알 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통합반	매주 토 오후 2:30 ~ 오후 6:30	남가주밀알사무실	14545 Valley View Ave. Sui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Milal Mission in Northern California 북가주밀알선교단 (김정기 단장) | milalnca.org

871 Coleman Ave. Suite 205, San Jose, CA 95110 / Tel: 408-605-2134 / norcalmilal@gmail.com

장애인과 함께 나누는 예배와 찬양모임

정기화요모임	산호세	매주 화요일 저녁 6:30 ~ 9:00	세계선교침례교회(1,2,4,5주)	62 S.San Tomas Aquino Rd, Campbell, CA 95008
			산호세한인장로교회(3주)	770 Lucerne Dr. Sunnyvale, CA 94085
사랑의교실	산호세	매주 토 오전 10:00 ~ 오후 3:00	산호세새소망교회	2900 Patrick Henry Dr. Santa Clara, CA 95054
	산타클라라	매주 토 오전 10:30 ~ 오후 3:30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1001 Ginger Lane, San Jose, CA 95128

Milal Mission in Seattle 시애틀밀알선교단 (장영준 단장) | seattlemilal.com

8506 238th St. SW, Edmonds, WA 98026 / Tel: 425-444-1669 / Fax: 425-774-2499 / seattle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시애틀	매주 토요일 오전 10:30 ~ 오후 2:3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8506 238th. SW, Edmonds, WA 98026
Seattle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화요일 오전 10:30 ~ 오후 3:00	시애틀형제교회	3700 Monte Villa Pkwy. Bothell, WA 98021
Tacoma Milal Academy (성인 장애인)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 오후 3: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8001 Pine St. S. Lakewood, WA 98499

Milal Mission in Vancouver 밴쿠버밀알선교단 (이상현 단장) | vancouvermilal.com

Instagram: @Vancouver_milal | Youtube: @Woorilog 우리로그, @Vancouvermilal 벤쿠버밀알

14625 108 Ave, Surrey, Upper Room, BC, V3R 1V9 CANADA / Tel: 604-339-4417 / vanmilal01@gmail.com

사랑의교실 토요모임 Happy Together	매주 토요일 오전 10:00 ~ 오후 12:00	써리장로교회	15964 88th Ave., Surrey, BC, V4N 1H5

예배, 작업치료, 음악, 댄스, 사진, 크래프트, 운동, 레크레이션, 베이킹, 공동식사, 아웃팅, 난타교실

Texas Milal Mission 텍사스밀알선교단 (채경수 단장) | txmilal.org | facebook.com/texasmilal

2828 E. Trinity Mills Rd, #360, Carrollton, TX 75006 / Tel : 267-467-5971 / Fax: 682-292-1365 / txmilal@gmail.com

사랑의교실	매주 토요일 오전 9:30 ~ 오후 1:3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성경적상담	매주 월~금 오전 10:00 ~ 오후 3:00	밀알선교센터	2828 E. Trinity Mills Rd, #300, Carrollton, TX 75006
목요 밀알아카데미	매주 목요일 오후 1:00 ~ 오후 4:00	달라스우리교회	2633 Royal Ln, Dallas, TX 75229
밀알청년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5:00 ~ 오후 6: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밀알 청년오케스트라	매주 토요일 오후 2:00 ~ 오후 4:00	한우리미션센터	1835 Pearl St. Carrollton, TX 75006
화요 온라인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00	Zoom ID: 895 0864 4965 / Passcode : 152562	

전세계에 퍼져있는 밀알들

세밀연 미주총단	워싱톤 / 리치몬드 / 캐롤라이나 / 필라델피아 / 시카고 / 뉴욕 / 뉴저지 / 애틀랜타 / 시애틀 / 북가주 / 남가주 / 텍사스 마이애미 / 캐나다(토론토) / 밴쿠버 / 브라질 / 파라과이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 멕시코
세밀연 유럽총단	북부독일 / 중부독일 / 남부독일 / 베를린 / 오스트리아 / 프랑스 / 스페인 / 포르투갈 / 헝가리 / 벨기에 / 우크라이나 바르셀로나 / 베오그라드 / 코소보
세밀연 한국총단	경기 / 전남동부 / 김포강화 / 거제통영 / 목포 / 부산 / 수원 / 용인 / 고양 / 구미김천 / 양산 / 경기광주 / 고흥보성
기타지역	뉴질랜드 / 호주 / C국(A,B) / 방글라데시



2027년도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장학생 신청을 받습니다.

미주밀알선교단에서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많은 장애인 학생들이 학업에 더욱 정진하고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7년에도 다음과 같이 장애인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 수혜대상: 밀알장학생: 00명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풀타임으로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
근로복지생: 0명 (미주밀알선교단 각 지단에서 봉사하는 장애인 중 선발)
꿈나무장학생: 00명 (사랑의교실 참가자 또는 배움의 기회와 학업의 격려가 필요한 장애인)

■ 제출서류: 남가주밀알 홈페이지(www.milalsca.org)에서 '2027 밀알장애인장학복지기금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내용을 기입하셔서 남가주밀알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mail 접수도 가능합니다.
밀알장학생, 근로복지생, 꿈나무장학생이 각각 제출서류가 다르니 꼼꼼이 확인 부탁드립니다.
완성되지 않은 신청서와 부족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엄격히 제외됩니다.
기존 장학생들도 반드시 동일하게 서류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학금액: 밀알장학생 및 근로복지생: 1인당 $3,600 (매월 $300/1년간 지급)
꿈나무장학생: 1인당 $1,000 (일시불)

■ 신청마감: 2026년 12월 4일(금)까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것에 한함 (Email 접수 가능)

■ 발 표: 2026년 12월 30일(수) 개별 통보함 ■ 수여식: 2027년 1월 18일(월)

■ 신청문의: 밀알선교단 장애인장학복지위원회 14545 Valley View Ave. Ste S,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229-0001 | Email: admin@milalsca.org | Website: milalsca.org

2026년에는 119명의 장애인 장학생들에게 $134,888의 밀알장학복지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장학복지기금이 출범한 200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급된 누적 총 금액은 $3,281,48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주내 각지역 밀알선교단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 욕: 718-662-8779
뉴 저 지: 201-530-0355
필라델피아: 215-913-3008
마 이 애 미: 786-372-3014
워 싱 톤: 301-294-6342
리 치 몬 드: 703-762-6906
캐롤라이나: 704-860-1388
애 틀 랜 타: 404-644-3533
시카고: 847-877-4202
남가주: 562-229-0001
북가주: 408-605-2134
시애틀: 425-444-1669
벤쿠버: 604-339-4417
텍사스: 267-467-5971